

광양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훈풍 분다

광양읍 84만㎡ 전남도 최종 승인...2020년까지100억 투입 한옥가꾸기·골목정비·문화 플랫폼 조성 등 사업 추진 탄력

광양시는 지난 6일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84만㎡에 대한 계획이 전남도로 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실행계획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사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2015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차에 걸친 국토부 관문심사를 거친 후 2017년 9월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남도로부터 전략계획 승인을 받아 '활성화지역 지정'을 완료한 후,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읍'

를 비전으로 '일상성 강화하기', '매력 더하기', '교류공간 구축하기', '함께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까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은 4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주거역사재생분야로는 ▲광양한옥 가꾸기 사업 ▲한옥공존임대주택 조성사업 ▲열린 골목 환경정비사업 ▲광양읍성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48억원이 투입된다.

녹색재생분야로는 ▲우리읍내 숲 가꾸기 사업 ▲골목정원 조성사업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원이 투자된다.

상가재생분야로는 ▲광양읍 문화 플랫폼 조성사업 ▲문화창고 운영사업 ▲상점가 재구조화사업 ▲시계탑사거리 시냇가 이디야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에 22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반구축분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84만㎡에 대한 계획이 최근 전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됐다. 사업 대상지인 광양읍 전경. <광양시 제공>

으로 8억원이 투자된다.

시는 이번 활성화계획 승인을 계기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위해 11월 중 지역 역량강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12월 중 한옥가꾸기와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다.

정에는 광양시 건설과장은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가 광양읍 원도심의 지역자원 활용과 공동체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랜 기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수립된 계획인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광영동과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9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출근 프로젝트 3기 수료식'에서 교육생들과 광양만권HRD센터 교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출근 프로젝트'로 취업했어요

여수광양항만공사 3기 수료식·취업경진대회 개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이하 공사)는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첫 출근 프로젝트' 3기 수료식과 취업전략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첫 출근 프로젝트' 사업은 광양만권 내 지역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120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해 일자리와 연계해 주는 고용프로젝트이다. 광양만권HRD센터가 주관하며 고용노동부, 전라남도과 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올해 총 3기의 교육생을 모집했던 '첫 출근 프로젝트'는 지난 5일 취업경진대회와 수료식 행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공사는 광양만권HRD센터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육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멘토링 및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광양만권 지역 일자리 창출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1~3기 교육생 총 45명 중 2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 나머지 교육생들도 공사-광양만권HRD센터와 함께 한 교육 및 멘토링 활동으로 한층 강화된 역량을 가지고 취업 시장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광양만권HRD센터 이혜진 직업상담사는 "교육 종료 후에도 우리 지역의 청년 구직자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취업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검증해 전달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 배병준 경영본부장은 "지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한다"며 "어렵고 힘든 취업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일자리 창출의 좋은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제철 노재그룹 무재해 7000일 달성

<내화물 관리부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학동)의 내화물 관리부서인 노재그룹이 최근 무재해 7000일을 달성했다.

이 기록은 무재해 카운트를 시작한 1998년 12월부터 이어진 것으로, 비공식적으로는 1987년 광양제철소 준공부터 32년간에 걸쳐 달성한 것이다.

노재그룹은 코크스공장에서부터 최종 제품이 나오는 도금공장에 이르기까지 9개 부서에서 내화물 축조 및 관리를 하며, 쇠물 생산부터 열연·냉연·도금제품 생산까지 내화물을 사용하는 부서가 품질과 생산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설비 조건을 만들어 왔다.

365일 중량의 내화물 축조와 해체 작업

을 지속해 오면서 무재해 기록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안전시스템 덕택이다.

노재그룹은 그룹사인 포스코엔텍과 광양로, 알앤에프, 두원(주)의 3개 협력사 전 직원들의 안전 제일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모든 작업 장소에서 ▲작업 전 작업표준서 운독 ▲작업 전 TBM 활동 ▲ILS시스템 등 안전 작업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부서 내부적으로는 동료 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안전시스템 가동 내용을 모두 기록·관리해 '안전 우수인' 직원을 상시 포상한다.

이밖에도 노재그룹은 그룹사, 협력사 및 공급사가 함께하는 소통산행, 스포츠 소통 활동,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재그룹과 협력사인 두원기업 직원이 안전 작업을 위해 가열로 내부 진입 전 측정기를 통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공>

팀워크와 안전의지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도 광양제철소 노재그룹은 '무재해 7000일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그룹사

및 협력사와 함께 안전마인드를 한층 강화해 영원한 무재해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교차로 설치 '차량 감응신호기' 교통흐름 개선 효과

광양시가 국도2호선 주요 교차로에 설치한 지능형 교통통신시스템인 '차량 감응신호기'가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차량 감응신호기'는 교차로에서 주도로와 부도로의 차량 흐름을 감지해 부도로에 대기 차량이 없는 경우 상시 주도로에 직진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광양읍 영세공원 입구, 사곡역안마을 입구, 석정삼거리 입구 등 6개소에 차량 감응신호기를 설치 운영해 왔다.

이어 올해에는 금호동 태극역 앞 사거리, 해안도로 입구 삼거리, 성황육교 사거

리 등 3곳에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차량 감응신호기 3곳은 출퇴근 시간대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가는 차량이 많아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시험 운영기간 동안 태극역 사거리 교차로의 차량 흐름도 많이 개선되고 운전자의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교

통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교차로 감응신호제

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 초기 감응신호기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일부 운전자의 불만이 제기됐으나 이는 교차로 정지선 앞 파란색 감응신호 검지태두리(루프검지기)를 벗어나 생긴 경우로 차량 정지 시 노면에 표시된 정 위치에 정착할 것을 당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차별화된 보육정책 추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보육재단 이사진, 조치훈 광양교육지원청 장학사, 신준수 한려대, 광성기 보건대 교수, 허예경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명숙 사립유치원연합회장, 학부모, 보육교사,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육재단의 3대 전략목표로 ▲광양시 어린이보육정책의 실행력 ▲광양시 어린이보육정책의 거점기관(메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특화 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됐다.

또 5대 전략과제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육정책 연구·기획 ▲어린이보육의 컨트롤타워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요자 맞춤형·특화서비스 제공 등이 언급됐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어린이보육재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방안과 함께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재단사업의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학계 전문가들은 보육재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 중앙정부·전남도 등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허예경 어린이집연합회장은 "현재 영유아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확대됐으면 한다"며 아이들을 위한 체험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